

심익와 철릭을 활용한 나이트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

김 현 정* · 조 오 순** · 김 여 숙***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 창원대학교 명예교수** ·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ightgown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Features of the Cheolik and the Shimui

Hyun-Jeong Kim* · Oh-Soon Cho** · Yeo-Sook Kim***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7. 1. 8 투고)

ABSTRACT

The study aimed to develop the nightgown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and design features of the Shimui and the Cheolik.

The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features of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and the physiological and motional attributes while sleeping resulted into the construction factors of the nightgown developed in the study. Consequently, the nightgown having these traditional Korean costume features were made for the evaluation.

4 different types of nightgowns were designed to be constructed. 20 professional clothing staff evaluated these 4 nightgowns developed and the existing nightgown used in the hotel industry.

The results from the wearing test evaluation were:

- (1) to consider the stable closure of the gowns while wearing, the scores of the gowns developed were higher than the existing one.
- (2) the evaluations of the wearing comfort of the standing posture for the gowns developed and the existed were more or less similar but considering the lying down posture, the scores of the developed ones were significantly higher.
- (3) the gowns developed to have the wide-ham lines were considered more appropriate to the leg movement compared to the existing gown.

The results from the fit and appearance test evaluation were:

- (1) throughout the all high levels, the means of the gowns developed were higher than the existing gown's means in the most of the evaluation questions.
- (2) in the evalu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features, the gowns developed were more appropriate than the existing one.

Consequently, the gowns developed were considered better to compare to the existing one in the context of postures, movements, comfort, appearance, fit, and design features.

Key words: nightgown(나이트가운), Korean traditional outerwear(Pho, 袍), Shimui(심익), Cheolik(철릭)

I. 서론

나이트가운(nightgown)은 수면 시 또는 휴식을 취할 때 입는 길이와 소매가 길고, 품이 넓은 의복을 말하며 잠옷 위에 착용하는 실내복으로도 사용된다.

수면 시에는 일상 시와는 상이한 동작과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특히 어깨선은 누운 자세에서 팔의 움직임에 따라 어깨 끝 부위가 올라가고 어깨경사 각도는 낮아져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된다¹⁾.

누워 있는 자세와 눕거나 기대어 취하는 행동이 많은 나이트가운은 어깨경사각이 0도인 한복의 구성적 특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관광산업의 성장 추세로 인해 매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이들의 소비 형태는 민감해져 보다 나은 가치의 첨단상품을 선호하며, 감성적으로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담은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관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 미주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협소한 국토와 자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성을 활용한 문화적인 체험으로의 여행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국내 호텔에서 제공되는 나이트가운은 구 미주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획일적이고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며²⁾ 실제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 한국적 이미지가 잘 표현된 전통복식을 활용한 나이트가운의 제공은 외국 관광객에게는 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 관광객에게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전통 복식 중 나이트가운의 형태와 유사한 우리의 전통 또는 나이트가운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구조로 형태가 기능적이고, 심오한 사상이 담겨있다.

한복을 활용한 잠옷이나 가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호텔용 가운의 디자인⁴⁾⁵⁾과, 한복을 이용한 잠옷 디자인⁶⁾⁷⁾, 휴식복의 개발⁸⁾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주로 실태조사와 디자인 제시로 이루어져 있고, 한복 구성상의 특징과 인체 동작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수면시의 인체의 동작과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나이트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구조가 기능적이면서도 철학적 사상이 담겨 있는 심의와 디자인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조형성을 지닌 철릭의 형태적인 요소와 특징을 이용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잘 표현된 실용적인 나이트가운을 개발·제작하고자 한다. 한국전통의 이미지와 기능성을 겸비한 나이트가운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호텔의 인지도 및 나이트가운의 착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문화의 향유의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문화적 특색이 담겨 있어 문화상품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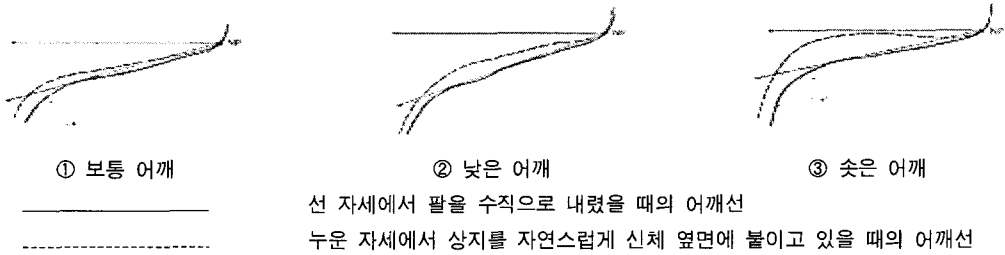
1. 수면 시 인체 동작과 생리적 특성

신체 부위 중 어깨부분은 의복의 무게를 지지하는 부위로 옷의 착용감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어깨 경사각은 남녀성차가 확실한데, 성인 여자의 평균치는 23도 전후이고, 약 11-12도에서 30도까지 편차가 대단히 크며, 서 있을 때와 누웠을 때의 어깨경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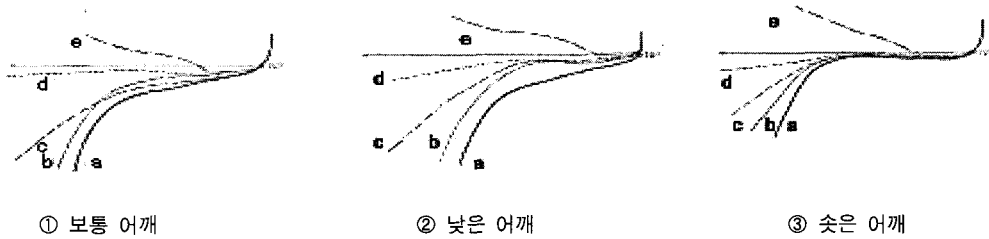
小池千枝는 선 자세와 누운 자세의 어깨경사를 비교하였는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자세 간의 어깨경사각도의 개인차는 있지만, 거의 5~15 도의 범위에 있으며 솜은 어깨의 피험자 경우는 누운 자세에서 거의 수평상태로 되어 있다.

<그림 2>는 취침 중에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되는 상지동작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중의 a~e 는 다음의 각 동작을 가리킨다.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누운 자세에서는 쇄골이나 견갑골의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어깨 끝 부위가 올라가고 어깨경사 각도는 낮아져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원형의 어깨경사를 사용한 의복은 누웠을 때 어깨 끝의 변위에 따라 의복의 어깨 끝에 막혀서 옆의 옷단선이 따라 올라가게 된다⁹⁾. 따라서 수면 시 착용하게 되는 잠옷은 어깨경사를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재단해야 저항이 없이 편안하고 착용감이 더 좋아진다.



<그림 1> 선 자세와 누운 자세 시의 어깨선 변화¹⁰⁾



- a. 상지를 자연스럽게 신체 옆면에 붙인 자세의 어깨선
- b. 팔꿈치를 굽히고 손을 흉부에 얹은 자세의 어깨선
- c. 상지가 신체 옆면에서 크게 벗어나 이른바 대(大)자형이 되었을 때의 어깨선
- d. 상완(上腕)을 수평까지 올리고, 팔꿈치를 굽혀서 전완(前腕)을 위로 들었을 때의 어깨선
- e. 머리 위쪽으로 손을 올렸을 때의 어깨선

<그림 2> 누웠을 때의 상지운동에 의한 어깨선 변화¹¹⁾

사람은 정지하고 있는 시간보다도 어떤 일과 놀이를 하면서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길며 가만히 있다고 생각되는 수면 중에도 손, 발, 몸의 방향과 위치를 바꾸어 움직이고 있다. 인체 동작 시 착용 피복이 피부의 변형에 대응해서 변형되지 않으면 인체는 구속되었다고 느낀다. 피복에 의한 동작의 구속은 인체의 피복과의 사이에서 소비되는 무효작업량을 증대시켜 생활 효율이 저하되고 피로해지기 쉬우며 너무 무거운 피복과 피복에 의해 몸을 너무 조이는 것도 피복압을 증대시켜 피부혈관을 압박하여 피로의 원인이 된다¹²⁾. 따라서 나이트가운은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고 여유가 있는 느슨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으며, 봉제부분이 가능한 적고, 입고 벗기에 편리해야 한다. 또한 취침 중의 무의식적인 동작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는 형태가 적합하다.

그리고 수면 시에는 안정시보다 대사율이 저하하고 땀이 잘 나며¹³⁾, 산열량은 감소하고 방열량이 증

가하여 신체가 냉각되기 쉽다¹⁴⁾. 그러므로 수면 시 착용하는 의복은 신체에서 발산되는 습기를 흡수하고 땀을 식혀 주어¹⁵⁾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면 시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게 신체를 감쌀 수 있는 형태와 신체의 온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의복은 체내로부터 발생되는 땀, 피지, 표피, 수증기, 가스 등의 분비물과, 외부의 흙, 먼지, 매연, 등의 부착물 때문에 오염이 된다. 오염된 의복은 외관상 보기 흉하고, 보건위생상으로 좋지 못하고, 형태나 소재의 원 성질을 변하게 하므로 오염을 제거하는 세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부에 밀접하여 오염에 상당한 부분이 노출되어 있기에 자주 세탁을 해야 하는 나이트가운의 소재는 세탁에 강하면서 감촉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안락감을 주어야 한다¹⁶⁾.

2. 잠옷으로의 한복의 구성적 특징

구성면에서 한복은 평면 구성형으로 인체를 기본으로 하여 제작하지만 평면적인 옷감을 직선적으로 재단하고 이를 꿰매어 평면적인 옷을 만들며, 이것을 다시 입체적인 인체에 맞도록 남은 부분을 주름 잡거나 접어서 끈으로 고정시키는 형태로 구성된다.

한복의 가장 뚜렷한 구성적 특징은 소매가 몸체와 직선으로 연결되어 어깨경사각이 0도를 이루고 어깨선과 소매의 진동은 직각이다. 활동면에서 보면 옷에서의 압박감이 없이 넉넉하고 편안하며, 전개형으로 이루어져 입고 벗기에 편리하고,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유 있는 실루엣을 이룬다. 한복의 H형이나 A형의 실루엣은 인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풍성한 실루엣으로 의복 전체에 유연함과 자연스러움을 주며 좌식 생활에 알맞으므로 평상복, 가정복, 휴식복 등으로 적합하다¹⁷⁾.

한복은 직선형 재단으로 거의 모든 체형에 입혀질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지는데 다산을 중요시 했던 시대에 입산복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풍성한 형태감으로 인해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며, 또한 의복과 직물이 귀했던 시대에 필요에 따라 의복형태와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실용적이었다.

등근 도련선은 유동적인 곡선미와 함께 의복구성의 측면에서 보면 가슴으로 인한 앞치짐본과 같은 인체를 고려한 입체곡선으로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¹⁸⁾.

한복에 사용한 끈, 주름, 무, 트임, 누비와 문양 등의 세부 장식은 미적효과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밈에는 옷고름이나 띠를 이용해 신체의 움직임에 여유를 주고, 입고 벗기에 편리함을 부여하여 실용성¹⁹⁾ 함께 장식성을 지니도록 하였다²⁰⁾. 주름은 의복에 입체감을 주면서 몸을 넉넉하게 하고 피부감을 부여하여 활동을 편리하게 하는데, 수직의 주름은 키를 커 보이게 하는 기능도 한다. 무는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구성의 의복에서 움직임이 많은 곳이나 트임이 있는 곳을 넓게 해주어 활동과 착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의 조각을 덧대는 것으로 주름과 무는 풍부한 여유분을 형태에 부여한다. 그밖에 누비와 문양

은 장식으로 활용하여 미적효과를 줄 수 있다. 문양은 상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누비는 형태적으로 뾰뾰하여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 내며, 직물의 보강의 효과와 보온의 효과도 있어 나이트가운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한복의 세부장식은 나이트가운에 적용하여 다양한 기능성과 함께 미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좋은 요소이다.

3. 나이트가운으로 활용 가능한 포의 종류와 특징

삼국사기에 ‘포(袍)’의 뜻으로 ‘표의(表衣)’라고 표기되어 있다. 포는 겉에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개념화 된 용어로 볼 수 있다.²¹⁾

포의 종류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령(直領), 용복용(戎服用:군복)첩리, 두루마기형 장의(長衣), 거드랑이에 주름을 잡아주어 기능성을 보완한 액주음포(腋注音袍), 포의 양옆이나 뒷부분에 트임을 주어 기동성을 배려한 중치막, 창의, 두루막힌 주의, 유학자들의 도포, 심의, 학창의 등이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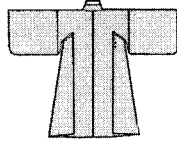
포는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유 있는 사다리꼴의 실루엣을 이루는 긴 원피스형으로 형태적으로 포는 현대의 가운과 유사하다. 대부분 품이 넉넉하고 무를 부착하거나 의복의 외곽선을 사선으로 퍼지게 한다. 겹쳐지는 부분을 교임으로 하고 이 위에 고름이나 띠로 여미도록 하며, 좌식생활의 특성 및 승마나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트임과 주름을 통해 여유분을 부여하였다²³⁾.

<그림 3>에서 보는 대부분의 포들이 상하의 구분이 없는 일체식인데 비해 심의와 첼릭은 상의(上衣)와 하상(下裳)이 따로 마련된 후 허리에서 이어지는 상하연철(上下連綴)의 독특한 형태로²⁴⁾ 허리가 절개됨으로써 가능한 아래 부분인 상에는 주름이나 여러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구성상의 변화가 있다. 주름이나 이어붙인 조각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품이 넓어지는 A라인의 실루엣을 형성하여 하지의 움직임을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활동성을 부여하고, 풍성하고 여유 있는 실루엣은 보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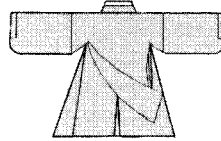
심의와 철릭을 활용한 나이트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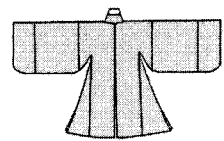
철릭(帖裏, 天翼)
상하연철(上下連綴),
허리주름,
광수(두리소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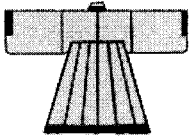
직령포(直領袍)
장유, 무, 광수,
백저포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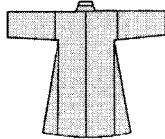
도포(道袍)
직령에서 유래, 무,
뒷트임(4폭),전삼,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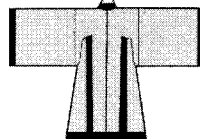
대창의(大擎衣; 창의)
중치막+무+
뒷트임(4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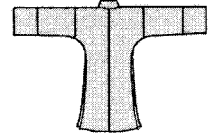
심의(深衣)
상하연철(上下連綴),
흑선, 광수, 12폭의 상



주의(周衣 ; 두루마기)
무, 착수 두루막힘



앵삼(鶯衫 ; 난삼)
무 뒤로, 방령, 흑선, 광수



소창의(小擎衣 ; 창옷)
무 없고, 옆트임(3폭), 착수

<그림 3> 포의 종류와 특징²⁵⁾

<표 1> 심의와 철릭의 비교 · 대조표

	심의	철릭
착용 모습 26)27)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와 하상이 따로 떨어져서 마름질해서 허리에서 연결한 형태 · 넓고 둥근 소매와 모난 깃을 가지며 검은 선을 소매 끝과 목둘레에서 상의 가장자리까지 두름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소매, 치마, 깃, 고름의 구성요소가 상의 하상(上衣下裳)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²⁹⁾ · 허리에서 주름을 잡은 것이 특징³⁰⁾
용도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깊이 감싸므로 심(深)이라는 뜻을 취하여 이름 지어진 의복³¹⁾ · 천자의 양노 예복, 제후(諸侯)의 제복, 사대부 및 서민층의 예복, 부녀자의 흉복 등 폭 넓은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착용 · 인간 중심의 사상-인간은 소우주로서 천지를 상징, 우주·인간·의복의 조화³²⁾ · 건(乾:하늘)·곤(坤:땅)의 뜻으로 의부와 상부를 나눔-천지의 조화와 건곤 중심의 우주 구성 원리 · 상을 12폭으로 구성-1년 12개월의 의미 · 옷의 가장자리와 소매 끝에 두른 선-부모에 대한 효도나 공경의 의미³³⁾ · 소매, 깃, 등술, 상의 아랫단 부위는 자연의 공간적 측면을 표현하는 원(圓), 방(方), 직(直), 평(平)의 상(象)으로 나타냄-천(天:圓), 지(地:方), 인(人:直, 평)을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부의 편복용 포로 애용 · 왕이 국난 시에 착용 · 문무관리들이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국난을 당했을 때, 임금의 행행(行幸)을 호위하여 따를 때에 융복으로 착용 · 악공(樂工) 및 여기(女妓)와 무녀(巫女)들이 검무(劍舞)를 출 때 입는 특수복, 마상의, 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³⁴⁾ · 왕에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착용, 남녀노소(男女老少) 구분 없이 애용³⁵⁾ · 기능성을 고려한 매듭단추로 연결되는 소매의 탈 부착-철릭만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³⁶⁾

용도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의 둥근 것-규(規)에 응한 것, 행(行)하는 자로 하여금 집양(읍하여 겸손함) · 목둘레의 모난 것-의(義) · 등에서 상 끝까지의 끈은 것-부승(負繩), 정사를 끈게 함을 의미³⁷⁾ 	
---------	--	--

통기성 등 좋은 여러 장점들³⁸⁾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심의와 철릭은 기능적인 형태면에서 나이트가운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심의에 담긴 철학적 사상은 전통미를 살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더해줄 것이라 기대된다. <표 1>은 심의와 철릭을 비교 대조한 표이다.

Ⅲ. 나이트가운 개발

1. 설계 의도

본 연구에서는 나이트가운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요건과 구성학적인 측면을 함께 충족하도록 하여 잠옷으로서의 기능 뿐 만 아니라 실내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간이복, 휴식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나이트가운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의복의 착용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 중의 하나인 견부의 어깨선은 한복의 구성법을 차용하여 누웠을 때 목 부분으로 옷이 밀려 올라가지 않도록 소매선이 없이 직선 형태의 소매를 몸판과 연결하고 어깨 각은 수평이 되게 설계하면서, 품의 여유량은 충분히 주고, 특히 하지의 움직임에 원활히 하기 위해 상하를 구분하여 하의에는 주름이나 플레이어를 주어서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앞부분은 한복의 포 형식을 도입하여 여밈으로 겹쳐지게 하고, 품의 여분은 끈, 고름, 매듭 등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체형의 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매는 접을 수 있는 형태와 7부 소매를 이용하여 팔 길이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였다.

소재는 체내로부터 발생하는 땀과 신체분비물을 잘 흡수하면서 흡착된 오염물질의 제거를 위해 세탁이 용이한 100% cotton을 사용하였다.

보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를 감쌀 수 있게 하고 각 부분의 형상은 전통 포의 심오한 의미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 가운 I 과 II는 심의의 구성적 특징과 심의에 담긴 철학적 사상을 함께 내포하도록 하였고 설계 가운 III과 IV는 철릭을 활용하여 기능적인 나이트가운이 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2. 나이트가운의 실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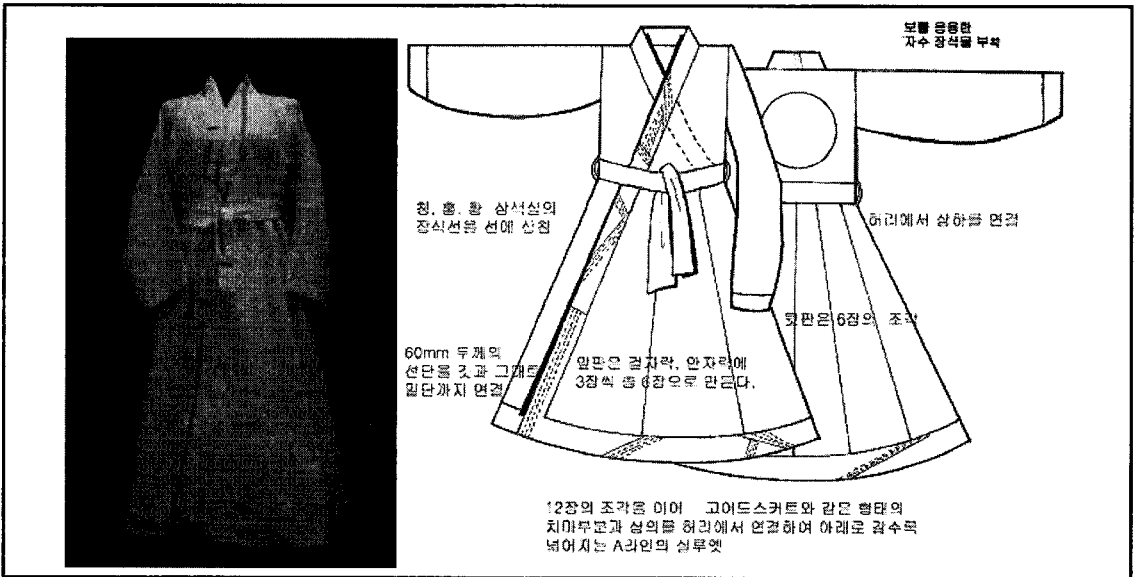
1) 설계 가운 I

나이트가운의 형태는 상하로 나누어 재단하되, 윗부분의 앞은 넉넉하게 감싸지게 하여 의(衣)부분이 되고 아랫부분은 12쪽을 이어서 상(裳)이 되도록 하였다. 즉, 상의하상(上衣下裳)을 분리하여 제도한 후 허리에서 연결함으로써 의부(衣部)와 상부(裳部)가 나누어지게 하였는데, 의는 건(乾 ; 하늘)을 상은 곤(坤 ; 땅)을 상징하여 건곤 중심의 우주의 구성 원리를 내포하게 하였다. 총 12장의 조각을 이어 고어드스커트와 같은 형태의 상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폭이 충분히 넓어져 건거나 앉았을 때 여밈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과 함께 1년 12월(月)의 의미를 담아 3쪽씩의 상(裳)이 총 4쪽의 의(衣)에 각각 달리도록 하여 춘하추동 4계절을 표현하였다.

가장자리에는 선을 짓고 연결하여 밑단까지 들렀으며 선에는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五方色)을 이용하였다. 옷감 소재는 백색을 사용하였고 흑, 청, 적, 황의 나머지 4색은 색실로 선부분에 상침을 하였다. 선은 여러 조각으로 패치워크해서 만들었고 조각이 이어진 솔기에는 검은 색실로 상침을 주어 단색으로 이루어진 조각들의 경계가 드러나게 하고 3가지의 색실로 나란히 상침을 하였는데, 3줄의 상침선은 여러 조각들이 이어진 시접을 고정시켜 주는 역할

<표 2> 설계 가운 I의 형태 및 세부 장식

형태	① 상하연철: 상하를 분리하여 의부분과 넓어진 치마부분을 허리에서 연결하여 하후상박의 실루엣을 형성 ② 어깨와 소매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어깨경사각을 없앤 수평의 패턴 ③ 심의 구성의 상징성을 살림 ④ 완만한 곡선 형태의 소매통 ⑤ 12쪽으로 이어 넓어지는 치마: A라인의 실루엣 형성, 1년 12개월의 의미
세부 장식	① 선을 밀단까지 이어서 두르고 별도의 칼라를 대지 않음 ② 색실로 상침한 끈: 앞부분의 여밈의 기능과 장식의 효과 ③ 자수장식: 등 부분에 달아 뒷부분이 포인트 ④ 선단: 여러 조각을 이어 붙인 패치워크 기법 사용, 이은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솔기부분이 드러나도록 상침하고, 청, 홍, 황 삼색실로 장식의 효과가 나도록 상침 ⑤ 백색 - 금, 결백, 진실, 순결의 의미 흑색 - 수, 인간의 지혜를 관장 적색 - 화, 창조, 정열, 애정, 적극성 청색 - 목,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 황색 - 토, 우주중심에 해당하고 오방색의 중심, 가장 고귀한 색
소재 및 장식	① 색상: 백색 ② 소재: 면 100% (Jacquard), 두께 0.80 mm



<그림 4> 설계 가운 I

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색의 조화, 천지만물의 조화의 의미를 담고 단색이 주는 단조로움에 장식의 효과를 준다.

앞부분은 색실로 상침한 끈으로 여밈의 고정 역할과 장식의 기능도 주었고, 등에는 십장생과 수(壽)자를 수놓은 보를 달아 주어 장수의 의미와 함

께 뒷부분의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2) 설계 가운II

형태는 설계 가운I과 같이 상하연철로 의부분과 넓어진 상부분을 허리에서 연결하여 하후상박의 실

<표 3> 설계 가운II의 형태 및 세부 장식

형태	① 넓은 폭의 치마를 허리에서 상의와 이은 구조: A라인의 실루엣을 형성 ② 상하를 의(衣)부와 상(裳)부로 분리하여 허리에서 연결 : 의부-건(乾), 상부-곤(坤), 천지조화의 의미, 건곤 중심의 우주 구성 원리 ③ 어깨 경사각을 주지 않은 수평의 어깨선 ④ 70mm 두께로 선을 두름 ⑤ 12폭을 사다리꼴로 이은 치마: 12개월의 의미
세부 장식	① 선을 밑단까지 이어서 두르고 별도의 칼라를 대지 않음 ② 여밈 처리: 고름을 묶는 방식으로 허리에서 2개의 끈으로 여며서 묶음 ③ 한글을 나이트가운에 적어 넣음: 한글언해본의 일부분
소재 및 장식	① 색상: 백색 ② 소재: 100% Cotton(Jacquard), 두께-0.60mm



<그림 5> 설계 가운 II

루엣을 형성한다.

여밈은 대를 사용하는 대신 고름을 묶는 방식으로 허리에서 2개의 끈으로 묶어 여밈을 하도록 하고 앞부분을 충분히 겹쳐지게 하여 품의 여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체형의 사람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칼라는 따로 달지 않고 안지(安志)·평심(平心)의 의미를 담아 선을 옷 가장자리에 둘러 선단이 칼라의 기능과 함께 밑단에 무게감을 주어 안정감을 부여하였다. 규(規)에 응한 무사(無事)의 상징을 담아 소매는 둥근 배래로 하였고 소매 끝에 끝동을 부모 공양의 의미로 들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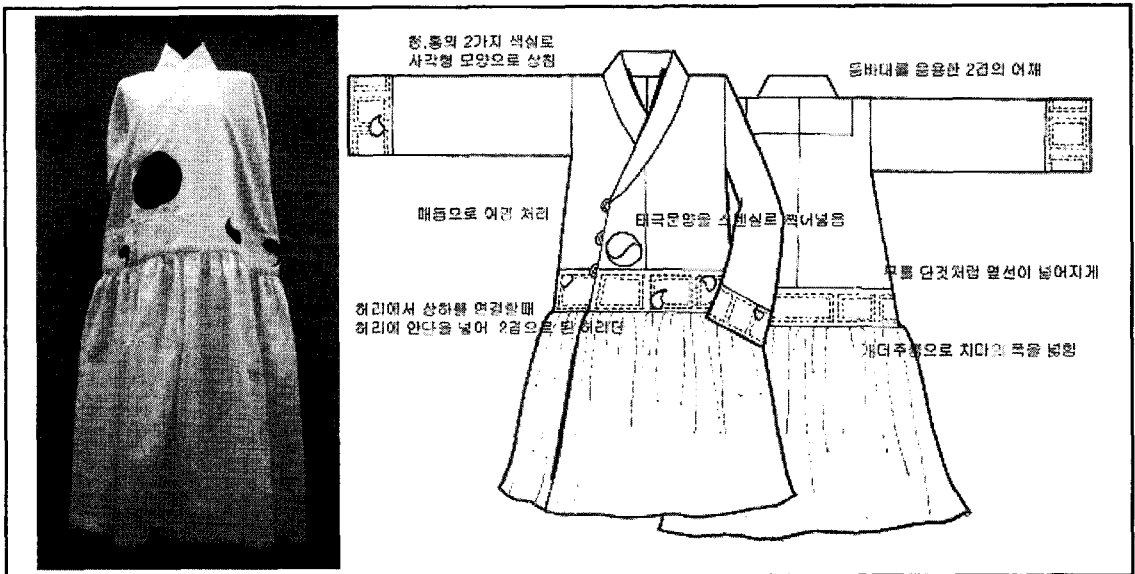
색은 흰색과 검은 색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문양으로 사용한 한글에는 지(智)의 뜻이 담긴 검은색을 나이트가운의 소재에는 의(義)를 상징하는 흰색을 이용하였다. 글씨체와 내용은 '훈민정음 한글언해본'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3) 설계 가운 III

철릭의 형태를 도입하여 개더주름을 잡은 풍성한 치마와 무를 단 것처럼 옆선이 넓어지게 한 상의를 허리에서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여유 있고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었다. 상하를 연결 할 때 허리선은 낮

〈표 4〉 설계 가운데Ⅲ의 형태 및 세부 장식

형태	① 상하 연결: 상하를 분리하여 의부분과 주름을 잡은 풍성한 치마부분을 허리에서 연결 ② 어깨와 소매를 직선으로 연결 ③ 직배래형의 소매: 접어서 소매 길이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 ④ 상의의 충분한 여유량 ⑤ 무릎 응용한 진동점에서부터 넓어지는 상의 ⑥ 낮은 허리선 ⑦ 허리에는 안단(요대)을 덧대어 주름을 눌러주는 효과
세부 장식	① 매듭단추: 앞부분의 여밈의 기능과 장식의 효과 ② 칭, 홍의 2가지 색실로 소매 끝과 허리단에 상침 : 칭색- 음의 기운 : 홍색- 양의 기운을 나타내는 색 : 음양의 조화 ③ 태극문양을 앞 중심과 허리단, 소매 끝에 스텐실로 찍어 넣음
소재 및 장식	① 색상: 백색 ② 소재: 100% Cotton(Dobby), 두께-0.42mm



〈그림 6〉 설계 가운데Ⅲ

추고 안단을 두어 2겹이 되도록 하여 주름을 눌러 주는 허리 부분의 안정감과 여밈 부분이 잘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앞부분은 겹침 분량을 충분히 두어서 여유량이 많아 활동적이면서도 착용자의 다양한 체격 조건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입혀질 수 있게 하고, 소매는 배래를 직선으로 하여 팔 길이에 따라 접거나 펼쳐서 입을 수 있게 하여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얇은 소재에서 오는 부족한 형태의 안정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깨부분은 2겹이 되도록 바대를 대어 주었고, 앞여밈부분에도 실을 달아 형태를 잡아 주었다.

<표 5> 설계 가운Ⅳ의 형태 및 세부 장식

형태	① 철리의 형태를 응용, 주름 잡힌 치마를 상의와 연결 - 자연스러운 A라인의 실루엣 형성 ② 소매와 7부 길이의 광수형의 통이 넓은 소매 ③ 4cm 크기의 플리츠 주름: 주름 위를 상침하여 주름을 고정 ④ 7cm 폭의 평면형의 칼라 ⑤ 엉덩이선에 걸쳐지는 낮은 허리선: 상의와 하의의 비가 1: 1
세부 장식	① 허리 중심에 자수 장식물 부착: 목숨 수자와 심장생의 문양 ② 심장생문: 해-세상을 밝게 비춤 산- 불변 구름- 속세를 벗어난 풍류 물- 깨끗함 소나무- 굳은 절개 대나무와 학- 넓은 기상 사슴- 선(善)과 평화 거북- 수호와 복 불로- 장생불노(長生不老) ③ 4개의 끈을 자수 장식물에 연결하여 끈을 허리 뒤로 돌려서 묶도록 함
소재 및 장식	① 색상: 백색 ② 소재: 100% Cotton(Jacquard), 두께-0.52mm



<그림 7> 설계 가운Ⅳ

4) 설계가운Ⅳ

설계가운Ⅳ는 상의하상으로 구분하여 상은 외주름으로 처리한 후 상의와 연결하는 철리의 형태로, 소매는 변형하지 않은 광수로 하여 웅장한 느낌의 전통성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칼라는 깃의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여 전통적인 우리 옷의 특징인 평면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IV. 착장 평가

설계·제작한 4벌의 나이트가운과 기존의 나이트가운에 대하여 착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남녀 각각 2명이 나이트가운을 입고 그 착용감을 평가하는 것과 피험자가 착용한 사진을 보고 의류학 전공 20명으로 구성된 평가자가 외관을 평가하는 것으로 각 문항을 5점 리커트법(전혀 적절하지 않을 때는 1점, 적절하지 않을 때는 2점, 보통은 3점, 적절할 때는 4점, 매우 적절할 때는 5점)으로 제작하였다.

키에 대한 항목은 ISO 사이즈체계 및 세계 각국의 사이즈 체계에서 키를 8 cm 간격으로 분류하고 있어³⁹⁾ 이를 참조하여 대한민국 20대의 표준체형의 평균 신장 174cm의 남자와 160 cm의 여자를 기준

으로 <표 6>과 같이 S형, R형, T형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평가대상자는 남자는 중간 신장 그룹의 R형과 상위 신장 그룹의 T형에, 여자는 하위 신장 그룹의 S형과 중간 신장 그룹의 R형에 해당하는 남녀 각각 2명씩(M1: male1, M2: male2, F1: female1, F2: female2)으로 150~180cm대의 다양한 신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하였고,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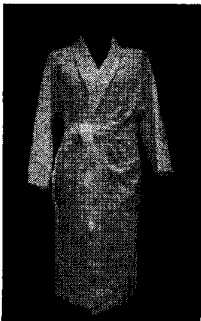
평가에 사용한 기존의 나이트가운은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호텔에서 타올지로 된 길이가 긴 서양식 쇼울 칼라의 가운을 사용하고 있어⁴¹⁾ 이에 해당하는 형태의 P 호텔의 객실에 제공되는 가운(두께 -1.10 mm, 소재-Terry(84% Cotton, 16% Polyester))

<표 6> 피험자 키의 차이에 따른 분류⁴⁰⁾

키의 구분	남자	여자
S형(Short)	166cm(162cm이상~170cm미만)	152cm(148cm이상~156cm미만)
R형(Regular)	174cm(170cm이상~178cm미만)	160cm(156cm이상~164cm미만)
T형(Tall)	182cm(178cm이상~186cm미만)	168cm(164cm이상~172cm미만)

<표 7> 피험자의 신체 치수

평가자	길이 항목			둘레항목			너비항목 어깨너비 (cm)	체중 (kg)
	신장 (cm)	등길이 (cm)	팔길이 (cm)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엉덩이둘레 (cm)		
M 1	182	50	62	92	88	100	51	69
M 2	174	46	60	93	80	96	44	66
F 1	166	42	58	84	66	88	40	54
F 2	156	39	52	81	64	90	36	44



<그림 8> 기존 가운의 사진

<표 8> 설계 가운과 기존 가운의 치수

	설계 가운Ⅰ	설계 가운Ⅱ	설계 가운Ⅲ	설계 가운Ⅳ	기존 가운
전체 길이	115	117	103	110	94
상의 길이	37	41	45	60	
치마 길이	78	76	58	50	
품	25	26	26	26	30
소매 길이	51	54	54	39	46
여밈 분량	14	13	14	11	2
허리선 둘레	156	156	180	168	128

으로 선정하였다. <그림8>참조

1. 착용감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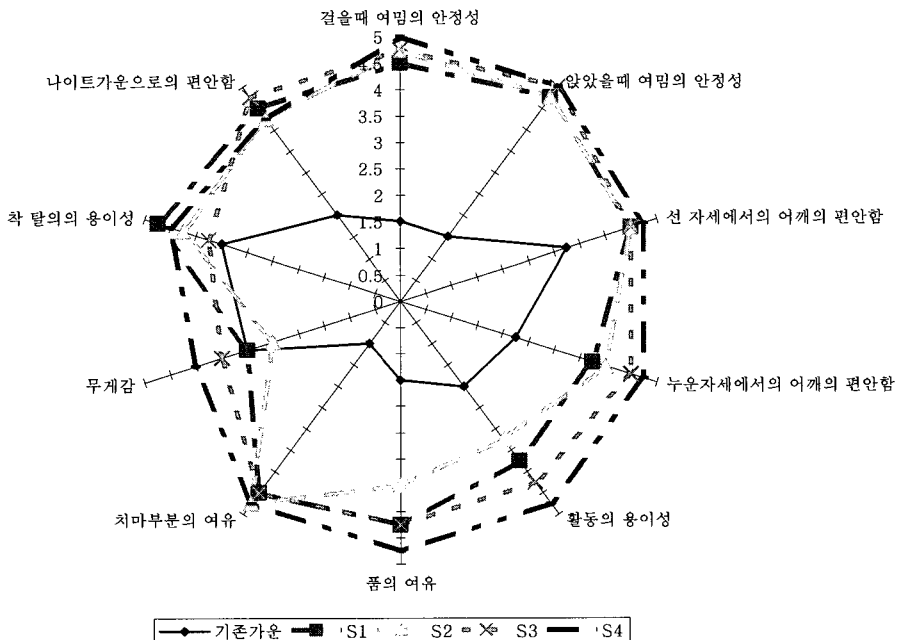
피험자 4명의 응답은 <그림 9>와 같이 신체 동작에 따른 적응력에 관한 내용에 있어 걸을 때 여밈 부분의 안정성을 묻는 문항과 앉았을 때의 여밈의 안정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의 가운이 1~2점인데 비해 S1, S2, S3, S4 모두 4~5점, 선 자세에서 어깨의 편안함을 묻는 항목에서는 기존가운을 3~5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의 좋은 평가를 했으며, 개발·제작가운이 대부분 4~5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누운 자세에서는 기존 가운은 4사람 모두 2점으로 부적합한데 비해, 개발·제작한 나이트가운은 3~5의 점수를 주어서 수평인 어깨선이 누웠을 때 편안함을 알 수 있었다.

입고 활동하기에 편안한지를 물었을 때 기존가운은 1~3으로 부적합한데 비해 개발 가운은 S2를 제외하고는 4~5의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S2의 경우는 품의 여유가 많아 키가 작은 사람에게 덜 만족스

러웠으나 기존의 가운보다는 만족스러웠다. 품의 여유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운이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였고, 개발·제작한 나이트가운은 4가지 중 S4가 네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치마부분의 여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가운은 네 사람 모두에게 1점을 받아 매우 부적합한데 비해 개발·제작한 나이트가운은 4가지 모두 4~5의 점수를 받아 하지부분의 활동을 위해서는 치마부분의 충분한 여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가운과 개발·제작한 나이트가운 간의 무게감에는 큰 차이가 없이 보통이상의 답을 하였는데 가장 얇은 소재를 사용한 S4는 3~5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아 가벼운 소재가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착 탈의의 용이성은 기존가운과 개발가운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듭을 사용한 S3 보다는 고름이나 끈의 형태의 여밈을 사용한 기존 가운과 S1, S2, S4가 좀 더 착 탈의가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나이트가운으로 입기에 편안함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가운은 1~3으로 보통이나 약간 부적합한데



<그림 9> 기능성 평가의 항목에 따른 가운 별 만족도

<표 9> 기능성 평가 항목에 따른 가운의 Duncan group

N=4

검사 내용	검사 항목	Duncan group (D / C / B / A)	F value
신체 동작에 따른 적응력	걸을 때 여밈 부분의 안정성	기존 / S1, S2, S3, S4	36.750***
	앉았을 때 여밈 부분의 안정성	기존 / S1, S2, S3, S4	70.500***
	선 자세에서 어깨의 편안함	기존 / S1, S2, S3, S4	3.000
활동성	누운 자세에서 동작에 따른 편안함	기존 / S1, S2, S3, S4	10.929***
	입고 활동하기에 편안함	기존 / S2, S1, S3, S4	5.767*
	폼의 여유	기존 / S2 / S1, S3, S4	13.650***
착용감	치마부분의 여유	기존 / S1, S3, S2, S4	5.767*
	무게감	기존, S1, S2, S3, S4	1.714
	착 탈의 용이성	기존, S3, S2, S4, S1	2.100
	나이트가운의 편안함	기존, S4, S1, S2, S3	10.250***

***p<.001, **p<.01, *p<.05

D < C < B < A의 순으로 평균이 높아진다. / 은 집단의 구분이며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비해 개발·제작한 나이트가운은 대부분이 4~5로 평가하여 개발·제작가운은 나이트가운으로 입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2. 외관 평가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 차에 따른 외관 평가의 항목별 평균 점수로 신장의 차이에 따른 가운의 평가 점수는 개발 가운 중 S1을 제외한 S2, S3, S4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키가 가장 큰 M1은 S1을 입었을 때의 평가 점수는 전체 외관, 허리선, 소매 길이의 항목에서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개발 가운에 비해 폼을 작게 한 S1이 키가 큰 180cm 이상인 M1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으나 기존의 가운에 비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S1은 키가 중간 정도인 M2와 F1에서 높이 평가되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보다는 표준 체형의 신장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S2의 경우는 M1이 입었을 때 모든 항목에서 가장 상위 점수의 집단에 속하는 A에 포함되는 높은 점수를 받아 키가 큰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었다. 키가 가장 작은 F2가 입었을 때는 전체 외관 3.90, 칼라 3.90, 전체 길이 3.30, 소매 길이 3.60, 폼이 3.80으로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존의 가운에

비해서는 좋은 점수였다.

S3역시 전체적으로 기존의 가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외관이나 맞춤세에 있어 남자가 입었을 때 더 보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는 접어서 길이를 조절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원래 길이가 긴 소매로 되어 있어서 키가 큰 남자에게 더 좋게 평가되었다. 폼의 여유량의 항목에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보기가 더 좋았다.

S4의 경우에는 M1의 칼라모양과 허리선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모든 체형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소매 길이는 S1의 경우에는 여자에게서, S2와 S3은 남자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아, 소매 길이를 50cm 내외로 한 S1은 신장이 156cm, 165cm의 여자에게 적당한 길이로, 55cm 내외로 한 S2와 S3은 174cm, 182cm의 남자에게 적당한 길이로 여겨진다. S4는 소매길이를 35cm 정도의 7부 길이로 150cm대에서 180cm대의 신장에 구애 없이 보기에 좋게 나타났다.

특히 여밈 분량은 S1을 키가 제일 큰 사람이 입었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높게 평가되어 여밈 분량이 충분히 많게 해 준 것이 나이트가운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나이트가운으로서의 디자인 특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S2, S3, S4가 모든 항목에서 A집단에 속하여 한글 문양과 자수 장식, 태극 문양이 한국적 특색을

잘 나타나고 있어 기념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적 특색이 있는 나이트가운으로 적당함을 알 수 있었다.

외관의 내용에 관한 항목 중 전체적인 외관은 S2와 S4가 칼라모양은 S4가 허리선의 위치와 여밈 부분의 안정성에서도 S2와 S4가 가장 좋았다.

맞음새에 있어서는 모든 항목에서 S4가 가장 좋은 점수가 나타났다.

디자인 특성을 묻는 항목에서도 개발 가운데 기존 가운데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개발가운에서는 S1에 비해 S2와 S3가 더 좋으며 S4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전통복식 중 나이트가운의 형태와 유사한 심의와

철릭의 디자인 특성과 구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능적이면서 문화적 특색을 지닌 나이트가운(night-gown)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복의 구성적 특징을 고찰하고, 수면 시의 인체의 동작과 생리적 특징을 분석하여 나이트가운의 설계요건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나이트가운의 설계요건으로는 첫째, 수면 시의 누운 자세를 고려한 수평인 어깨선이 적합하다.

둘째, 한복의 수평의 어깨선, 넉넉한 품 고름이나 끈을 이용한 여밈, 주름, 트임 등의 구성적 특징은 잠옷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전통 포 중 심의와 철릭은 넓은 폭의 상(裳)이 의(衣)부분과 허리에서 연결된 상하연철(上下連綴)의 구조로 이루어져 활동 시 하지의 움직임이 자유스럽게 하는 기능성과 형태나 디자인적 요소는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어 나이트가운으로 활용하

<표 10> 외관 평가의 항목별 평균 점수

N=20

		외관				맞음새				디자인			
		전체 외관	칼라 모양	허리선 위치	여밈의 안정성	전체 길이	소매 길이	진동 둘레	품	여밈 분량	한국적 특색	기념품 활용	나이트가운 적합성
기 존	M1	1.80	2.20	2.05	1.70	1.95	2.00	2.55	1.75	1.70	1.20	1.00	1.50
	M2	1.75	1.30	2.50	1.80	2.05	1.80	1.95	2.00	2.00	1.05	1.10	1.70
	F1	1.75	1.30	2.50	1.80	2.05	1.80	1.95	2.00	2.00	1.05	1.10	1.70
	F2	1.90	2.70	2.40	2.00	2.30	2.50	2.35	2.50	2.00	1.00	1.20	1.80
S1	M1	2.60	3.55	2.25	3.10	3.05	2.70	3.00	3.20	3.45	3.45	3.05	3.35
	M2	3.70	4.15	3.55	4.05	4.00	3.75	4.25	4.35	4.20	4.25	4.05	4.25
	F1	3.95	4.20	3.85	4.10	3.95	3.85	4.05	3.95	3.95	4.10	4.05	4.10
	F2	3.80	4.00	4.00	3.90	3.20	4.10	4.00	3.80	4.10	4.10	3.80	3.80
S2	M1	4.60	4.50	4.20	4.50	4.50	4.60	4.40	4.3	4.50	4.60	4.60	4.50
	M2	4.20	4.30	4.15	4.35	4.05	3.95	3.85	4.05	4.20	4.85	4.50	4.10
	F1	4.30	3.80	4.15	4.10	4.20	3.65	4.00	3.95	4.10	4.85	4.50	4.15
	F2	3.90	3.90	4.00	4.00	3.30	3.60	3.95	3.80	4.00	4.70	4.60	3.90
S3	M1	3.55	4.20	4.15	4.10	3.45	4.10	3.95	4.10	4.05	4.30	4.20	4.10
	M2	4.05	4.25	4.15	4.30	4.05	3.60	4.10	4.30	4.40	4.70	4.40	4.15
	F1	3.90	3.80	4.00	4.10	4.40	3.25	3.65	3.90	4.10	4.70	4.35	4.45
	F2	3.15	3.90	3.65	4.15	3.45	3.95	4.05	3.65	4.10	4.45	4.25	4.25
S4	M1	4.20	4.00	3.85	4.30	4.10	3.90	4.05	4.15	4.20	4.50	4.60	4.40
	M2	4.75	4.85	4.65	4.55	4.65	4.25	4.45	4.70	4.25	4.80	4.80	4.90
	F1	4.70	4.65	4.85	4.65	4.85	4.55	4.50	4.45	4.45	4.90	4.80	4.80
	F2	4.45	4.55	4.55	4.55	4.45	4.75	4.55	4.65	4.55	4.85	4.75	4.55
F	Value	47.412	54.600	22.922	39.928	37.149	21.283	29.34	31.630	28.601	127.299	80.840	40.851
		***	***	***	***	***	***	***	***	***	***	***	***

***p<.001, **p<.01, *p<.05 회색으로 채색한 부분은 평균이 가장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기에 적합하다.

정립된 나이트가운의 설계요건에 따라 4벌의 실물을 설계·제작하고 피험자에 의한 기능성 평가와 외관 평가의 착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피험자가 직접 착용한 후 평가한 기능성 평가의 결과는

- ① 개발 나이트가운은 기존 가운에 비해 동작 적응력, 활동성, 착용감의 기능성 만족도는 높았다.
- ② 특히 움직임 때 여밈 부분이 벌어져 불편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 가운이 1~2로 부적합한 반면 개발 가운은 4~5로 만족도가 높아 걷거나 앉았을 때의 여밈의 안정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 ③ 자세에 따른 건부의 편안함을 묻는 항목에서 선 자세인 경우 기존 가운과 개발 가운과의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비해 누운 자세에서는 기존 가운은 2~3점, 개발 가운은 4~5점으로 평가점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개발가운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수평의 어깨선으로 제작된 개발 가운이 나이트가운의 형태로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④ 개발 가운은 치마부분의 여유를 묻는 문항에서 기존 가운의 네 명의 평가자 모두가 응답한 1점에 비해 4~5의 높은 점수 분포를 보여 하지부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치마부분에는 충분한 여유를 준 형태가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피험자가 착용한 모습을 관찰자가 보고 외관을 평가한 결과는

- ① 개발 가운은 외관, 맞음새, 디자인 특색을 묻는 모든 항목에서 기존의 가운보다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 ② 착의자의 신장의 차이에 따른 개발 가운의 평가 점수는 개발 가운의 1~3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150cm~180cm대에 이르는 신장 차이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수용됨을 알 수 있었다.
- ③ 특히 한국적 특색, 기념품으로의 활용가능성,

나이트가운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항목에서 개발가운이 기존의 가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발가운은 한국적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어 기념상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한국의 전통의 이미지를 담은 나이트가운으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 요건을 토대로 나이트가운을 설계 제작하였으며, 착장 평가 결과 문화적인 특색을 지닌 기능적인 나이트가운으로 평가되었다. 숙박업소에서 목욕가운의 기능까지 겸하는 나이트가운을 개발하려고 하였기에 소재에 있어 면으로 제한하였지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여러 용도의 나이트가운 개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심 의와 철 리 를 활 용 하 여 제 작 한 나 이 트 가 운 이 우 리 나 라 사 람 뿐 아 니 라 외 국 인 에 게 까 지 널 리 사 용 되 어 지 고 가 운 에 담 긴 철 학 적 사 상 이 착 용 한 사 람 들 에 게 전 해 져 우 리 민 족 의 전 통 복 식 에 대 한 우 수 성 을 재 조 명 하 고 전 통 복 식 이 더 욱 계 승 발 전 될 수 있 는 계 기 가 되 었 으 면 한 다.

참고문헌

- 1) 小池千枝 (1991). 服裝造形論. 文化出版社, p. 46.
- 2) 이선화. 호텔 실내 가운의 디자인 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 연구-한국과 일본의 실내가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9.
- 3) 문광희·문명옥 (2004). 한국 전통 이미지의 호텔용가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p. 47.
- 4) 문광희·문명옥 (2004). 한국 전통 이미지의 호텔용가운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
- 5) 이선화 (2001). 호텔 실내 가운의 디자인 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 연구-한국과 일본의 실내가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경화 (2001). 조선시대 속옷을 응용한 중노년 여성의 잠옷 디자인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태영 (2001). 조선시대 속옷을 응용한 성인 전기 여성의 잠옷 디자인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채금석 (2002). 관광사업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의 휴식복 개발 -여객선·여객기·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집문당.
- 9) 小池千枝. *ibid.*, p. 46.
- 10) 小池千枝. *op. cit.*, p. 47.
- 11) 小池千枝. *ibid.*, p. 47.
- 12) 김은애 (1994). 기초피복위생학. 경춘사, p. 9.

- 13) 김태영. *op. cit.*, p. 5.
- 14) 이선화. *op. cit.*, p. 16.
- 15) 이정옥 (1990). 의류학 개론. 학문사, p. 32.
- 16) 이선화. *op. cit.*, p. 16.
- 17) 백영자 (2001). 한국복식.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18) 도주연·권영숙 (2000). 조선복식에 표현된 선의 미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8(2), p. 59.
- 19) 김경화 (2001). 조선시대 속옷을 응용한 중노년 여성의 잠옷 디자인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20) 김인향 (1996). 전통복식조형미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복식의 시각적 특성에 의한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5.
- 21) 여상미·박옥련 (2002). 조선시대 남자표의에 나타난 형태. 복식, 52(4), p. 40.
- 22) 조오순 (2006). 우리옷 이야기, 창원대학교 출판부, p. 59.
- 23) 도주연·권영숙. *op. cit.*, p. 4.
- 24) 정혜경 (2000). 조선시대 첩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 관계. 복식, 24(2), p. 89.
- 25) 조오순. *op. cit.*, p. 59.
- 26) 권오창 (199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 옷. 현암사, pp. 76~78.
- 27) 김영숙·손경자 (1984). 조선왕조 복식 도감. 예경산업사, pp. 42~49.
- 28) 김인숙 (1974). 심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29) 정경임 (2003). 고려후기 요선철리에 관한 연구-해인사 유물 복원 재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5.
- 30) 유희경 (1989).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 285.
- 31) 이영복 (1983). 심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32) 이영복. *ibid.*, p. 41.
- 33) 이선행 (1993). 심의 구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97.
- 34) 최진경 (2003). 조선시대 첩릭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 박물관 소장 출토 첩릭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 39.
- 35) 정경임. *op. cit.*, p. 5.
- 36) 최진경. *op. cit.*, p. 40.
- 37) 이영복. *op. cit.*, p. 41.
- 38) 도주연·권영숙. *op. cit.*, p. 4.
- 39) 문명옥·천태일 (2000). 니트츄리닝복의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만 15~24세 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 24(3), p. 340.
- 40) 황효영·홍정민·송정아 (1999). Free-Size 환자복 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47, p. 116.
- 41) 문광희·문명옥. *op. cit.*, p. 46.